

農業勞動力統計에 관한 吟味와 하나의 推計 (1955~78)

鄭 英 —*

.....〈目 次〉.....

- I. 문제의 제기
- II. 既存 農業勞動力統計의 比較 檢討
- III. 農業勞動力規模變動의 推計
- IV. 남은 課題

I. 문제의 제기

농업노동력의 크기에 관한 타당성이 높으며 일관성을 지닌 時系列統計의 利用可能性은 過剩人口의 初期條件 아래서 工業化를 시작하는 開發途上經濟의 成長 및 構造分析을 위해서는 매우 繫要하다. 특히 工業화와 都市化가 진전됨에 따라 農業部門의 人口 및 勞動力增加는 相對的으로 鈍化될 뿐 아니라 어느 段階에 가서는 絶對的인 減少趨勢를 보임으로써 實質賃金의 變化를 포함한 要素相對價格構造의 變化를 일으켜 農業部門에서 채용되는 技術의 폐단을 바꾸는 등 非農業部門뿐 아니라 農業部門自體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韓國의 戰後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도 이미 1950年代 中盤以來 農業人口의 比重低下가 시작되고, 1967, 8年경부터는 農家戶數 및 農業人口의 絶對數가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變化의 速度가 매우 급격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戰後期間의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의 年次別統計는 1951年 이후의 것이 「農業基本調查」의 결과를 통해 이용가능하지만, 農業部門의 勞動力내지 就業者數에 관한 時系列統計는 1960年代에 들어서 시작된 統計法의 制定 實施에 따른 각종 指定統計의 整備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이용가능해지며 그 이전의 時期에 관해서는 公式統計에 따르는 限 總體의인 規模의 變動조차 파악되지 못한다. 또 1963年 이래 年次別 및 4分期別 標本調查의 結果가 公表되어 있어 가장 重要한 勞動力統計로 이용되고 있는 「經濟活動人口調查」의 農家經濟活動人口 및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農林業就業者數統計는 앞서 본 「農業基本調查」의 趨勢나 그동안의 經濟情勢의 進展 즉 급속한 工業화 및 都市人口集中에 따른 農村勞動力의 大量流出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상당한 期間에 걸쳐 보이고 있다.

本稿는 戰後期의 韓國工業化過程에 따른 農業部門의 構造的 變化를 實證的으로 다루려는 試圖의 一環으로 이루어진 農業勞動力統計系列의 整備作業의 一次的 結果이다. 여기에서는 「人口센서스」, 「農業센서스」, 「農業基本調查」, 「經濟活動人口調查」, 「農家經濟調查」 등의 利用可能한 既存의 統計資料들과 既存研究成果들에 대한 比較吟味를 통해 農業 및 經濟與件의 變化에 비추어 一貫性을 지닐 수 있는 農業勞動力스토크의 推計를 1955~78年 期間에 관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既存 農業勞動力統計의 比較 檢討

1. 人口調查統計

農業勞動力에 관한 통계는 크게 나누면 人口調查와 特定產業내지 事業所에 관한 조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農業調查 등 두가지 類型의 調查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韓國의 경우 前者 즉 人口調查에 속하는 것으로는 「人口센서스」와 「經濟活動人口調查」를 들 수 있으며 後者 즉 農家調查에 속하는 것으로는 「農業센서스」와 「農業基本調查」를 들 수 있다.

먼저 人口統計의 根幹을 이루는 「人口센서스」의 標本調查項目 속에는 經濟活動狀態, 就業·求職與否, 產業, 職業, 총사상의 지위, 就業形態 등이 포함되어 있다. 戰後期에 있어서는 1949, 55, 60, 66, 70, 75年에 人口센서스 또는 그에 준하는 調查가 실시되었던 바, 그 중 1960, 70年은 本調查가 나머지는 簡易調查가 행해졌다. 1949年 5月 1日을 기준으로 한 「總人口調查」結果는 速報를 제외한 거의 전부가 戰亂 속에서 분실되었다. 1955年 9月 1日을 기준으로 삼은 「第1回 簡易總人口調查」에서 나타난 勞動力狀態 및 男女別 人口와 職業別 男女別 人口 등 勞動力關係의 數值는 勞動力率이나 失業率 등의 指標와 관련시켜 검토할 때 經濟活動 및 就業의 基準이 지나치게 廣義로 잡아지는 등 調查基準上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1960年以後의 系列과 연결시켜 利用하기가 곤란하다.

1960年 이후의 「人口센서스」는 年齡 및 性別 經濟活動狀態, 산업·연령 및 성별 취업자, 산업·총사상의 지위 및 성별 취업자 등 약간의 勞動力關係의 情報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1960年的 센서스가 11月 24~30日間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66年 이후의 調查는 모두 9月 下旬의 1週間으로 調查對象期間을 統一하고 있으며, 經濟活動人口에의 포

참여부나 就業・不就業의 判定基準에 관해서는 調査對象期間에 있어서의 實體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르는 이론과 勞動力接近法(labor force approach)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調査標本의 크기는 1960年이 全數調查項目의 20%, 66年과 70年이 10%, 75年이 5%로 각각 되어 있다.

「人口센서스」에 포함된 勞動力統計를 農業經濟分析에 採用하는 데 있어서는 調査의 頻度가 5年에 1回에 지나지 않아 年次的 變動의 파악에 制約이 크다는 점 이외에도, 就業의 季節性이 매우 심한 農業의 경우 9月 下旬의 1週間의 實體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라는 점에서도 다른 統計와의 比較性에 특히 留意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한 「人口센서스」에 포함된 經濟活動關係의 調査項目에 관해서는 〈附表 1〉에 요약되어 있다.)

人口調査의 類型에 속하는 또 하나의 統計인 「經濟活動人口調查」도 「人口센서스」와 마찬가지로 勞動力接近法에 따른 標本調查로서, 全國을 母集團으로 抽出된 家口內의 14歲以上의 人口를 調査對象으로 하여 經濟活動狀態, 就業과 失業 및 종사상의 지위 등 雇傭構造와 그 변동을 조사한다. 이 調査는 調査週間의 주된 활동상태, 就業・求職與否, 產業, 就業時間 등 상세한 經濟活動事項을 調査項目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全產業 속의 農業의 位置를 밝혀주는 점에서 유용하며, 國民經濟의 雇傭情勢變動에 관한 代表的인 指標로 利用되고 있다.

이 調査는 1957年부터 1962年 5月까지의 期間동안 地方行政機關을 통해 매월 就業者와 失業者의 資料를 수집 발표해 왔던 「勞動力調查」의 결합을 시정하여 경제계획수립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資料를 얻기 위해 1962年 8月에 1960年 人口센서스의 調査區를 기초로 설계된 全國家口의 1/1,000의 標本調查區를 대상으로 첫 調査를 실시한 후 1962年 12月에 이어 1963年부터는 年 4回(3, 6, 9, 12月)에 걸쳐 分期別 統計를 發表해 오고 있다. 그후 1969年 6月, 72年 3月 및 77年 3月에는 각각 1966, 70, 75년의 人口센서스의 調査區에 근거를 둔 標本交替가 이루어졌으며, 標本의 크기도 1972年 3月부터는 全國家口의 1/500, 77年 3月부터는 1/349로 각각 擴大되어 왔다.

「經濟活動人口調查」는 年間 4回의 一定한 1週間의 全國의 14歲以上 人口를 對象으로 하는 規則的인 標本調查이므로, 制約은 있으나 農業就業의 季節性과 그 變動을 볼 수 있고, 약 15년에 이르는 年次的 分期別 時系列을 갖춘 점에서 매우 有用한 情報를 제공해 준다. 또 이 調査는 그 주된 目的이 雇傭構造의 變動把握에 있으므로, 經濟活動參加率, 就業率 등의 指標를 男女別, 農家・非農家別, 季節別로 算出할 수 있어 다른 調査에 비해 勞動力分析을 위해서는 월등한 有用性을 지닌다.

그러나 이 調査는 農家와 非農家를 포함한 全國의 家口를 母集團으로 한 標本調查이므로 經濟構造의 變動이 매우 급격한 時期에 있어서는 5年에 1回 실시되는 人口센서스를 기초로 한 標本交替만으로는 國民經濟를 구성하는 各部門間의 比重變化에 따르는 雇傭構造의 變化趨勢를 迅速正確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經濟活動人口調查」가 지닌 이러한 限界性은 農業이라고 하는 하나의 產業部門에 속하는 勞動力의 크기를 문제로 하는 우리의 研究關心에 비추어 볼 때는 중요한 制約要因으로 되며 이러한 制約性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다른 資料들과 比較吟味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農業部門勞動力의 總體의 い規模의 變動이라는 側面을 제외한다면 이 調査는 매우 귀중한 研究資料를 제공해 준다.

2. 農業調查統計

다음으로 「礦工業센서스」나 「都・小賣業센서스」와 마찬가지로 特定한 產業 또는 事業所를 대상으로 한 統計의 일종에 속하는 「農業센서스」와 「農業基本調查」에 포함되어 있는 勞動力關係의 統計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農業센서스」는 일정한 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全農家를 대상으로 農家, 土地, 生產資材, 農家人口, 農業雇傭, 農業生產 등의 構造를 파악하기 위해 행해지는 全數調查로서, 14歲以上의 農家人口에 대해서는 농업종사, 농업이외(겸업)종사 및 기타(家事, 學生, 기타)人口 등으로 나누어 調査對象年間의 就業狀態를 조사한다. 戰後期에 있어서의 「農業센서스」는 1960年度(1961年 2月 1日 基準으로 실시)와 1970年度(同年 12月 1日 기준)의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975年(同年 12月 1일 기준)에는 1/10 標本을 대상으로 한 簡易센서스가 실시될 바 있다.

「農業센서스」에서 채용되고 있는 雇傭에 관련된 項目들의 定義나 分類基準은 1970年과 75年 사이에는 變化가 없으나 1960年的 조사에서는 分類基準이 약간 달라 比較性에 약간의 問題가 없지 않다.(세차례의 「農業센서스」에 나타난 就業別 農家人口統計에 관해서는 <附表2>를 참조할 것.) 또 염밀히 말하면 「農業센서스」의 調査對象은 農家人口에 局限되므로 非農家로부터 공급되는 農業就業者는 除外되지만, 實態的으로 볼 때 이로 인한 問題는 매우 微微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概念上으로 특히 留意해야 할 점은 「農業센서스」에서 파악되는 就業人口는 「人口센서스」 및 「經濟活動人口調查」와는 달라서 有業者接近法(gainful worker approach)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 方式을택할 때 農業從事人口는 就業・失業을 따로 區分하지 않고 調査對象年間의 通常의 狀態(usual status)를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보통 1週間의 特定한 調査期間의 實제의 활동(current activity)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상태를 조사하는 勞動力接近

法과 다르다.⁽¹⁾ 다시 말하면 「農業센서스」에서는 14歳以上의 農家人口 중에서 年間 단 하루만이라도 農業에 종사한 일이 있는 사람을 통틀어 農業從事人口로, 그중에서 農業以外의 일에 비해 農業으로부터 얻는 收入이 많거나 農業에 종사한期間이 길거나 혹은 努力を 주로 農業에 기울인 사람을 農業主從者로 定義한다. 이러한 定義는 勞動力接近法에서의 就業者의 定義(즉 調査週間 중 收入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했거나 가족종사자로서 일정한 시간 이상 일했거나 질병이나 日氣不順 등으로 一時的으로 쉬었거나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애매하다는 批判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歷史的으로 볼 때 勞動力接近法은 1930年代의 大恐慌下의 美國에서 失業對策樹立에 쓰일 수 있는 計測可能한 就業・失業概念을 定立할 필요성으로부터 案出된 것으로서, 既往의 有業者接近法과 다른 점은 有業者以外의 經濟活動이 가능한 人口 중에서 實際 求職 중이거나 그럴 意向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區分하는 데 있었다. 勞動力接近法에서는 前者를 失業者로 定義하여 就業者와 함께 經濟活動人口 또는 勞動力으로 分類하며, 그밖의 人口를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한다.

따라서 勞動力接近法은 勞動力의 需給이 雇傭勞動市場을 통하여 결정되며 失業保險制度가 整備된 產業社會에서는 經濟活動人口把握을 위해 매우 有用하며 適切한 方法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農業에서와 같이 零細한 家族經營이 支配的이며 상당수의 不完全雇傭狀態에 있는 家族從事者를 지니고 있는 經濟에서는 勞動力接近法에 의해서 파악되는 完全失業의 意味는 크게 制約을 받는다. 이러한 弱點을 補完하기 위해 勞動力接近法의 調査에서는 就業時間이나 追加就業希望 등의 項目을 설정하기도 하나 農業雇傭의 경우 激甚한 季節性과 婦女子를 중심으로 하는 家族從事者의 存在 등의 特性에 비추어 두가지 接近에 따르는 制約性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農業센서스」와 더불어 事業所를 대상으로 하는 統計의 범주에 속하는 또 하나의 調査는 「農業基本調查」이다. 이 調査는 農業經營의 基本要素를 이루는 農耕地, 農家 및 農家人口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1951年 이래 每年 실시되고 있다. 調査方法은 1973年까지는 매년 10月 1日을 基準時點으로 한 行政報告에 의존해 왔으나, 1974年부터는 セン서스年度를 제외하고는 12月 1일을 기준으로 全農家數의 10%에 해당하는 標本農家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農業基本調查」에 勞動力에 관한 項目이 추가된 것은 1976年부터로 극히 최근의 일이며, 채용된 定義와 分類基準은 「農業센서스」에 준한다. 따라서 이 調査로부터는 직접적으로 農業從事人口에 관한 長期間의 連續的인 時系列資料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유감이지만

(1) 이 區分에 관해서는 梅村又次, 『戰後日本の勞動力 — 測定と變動』(一橋大學 經濟研究叢書 13), 岩波書店, 1964, pp. 16-23 참조.

비록 行政報告統計라고 해도 1951年 이래의 年次別 年齡別 農家人口系列을 지닌 唯一한 資料인 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繁要하다.

「農業基本調查」에서 얻는 農耕地面積에 관해서는 약간의 過少評價傾向이 지적되고 있으나,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에 관해서는 定義⁽²⁾나 調查方式의 변경에 따른 약간의 差異는 있울지언정 基本的으로는 一貫된 時系列資料로 볼 수 있어 이 調查에서 얻는 年齡別 農家人口統計는 우리의 勞動力推計作業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해 준다.

3. 農業人口統計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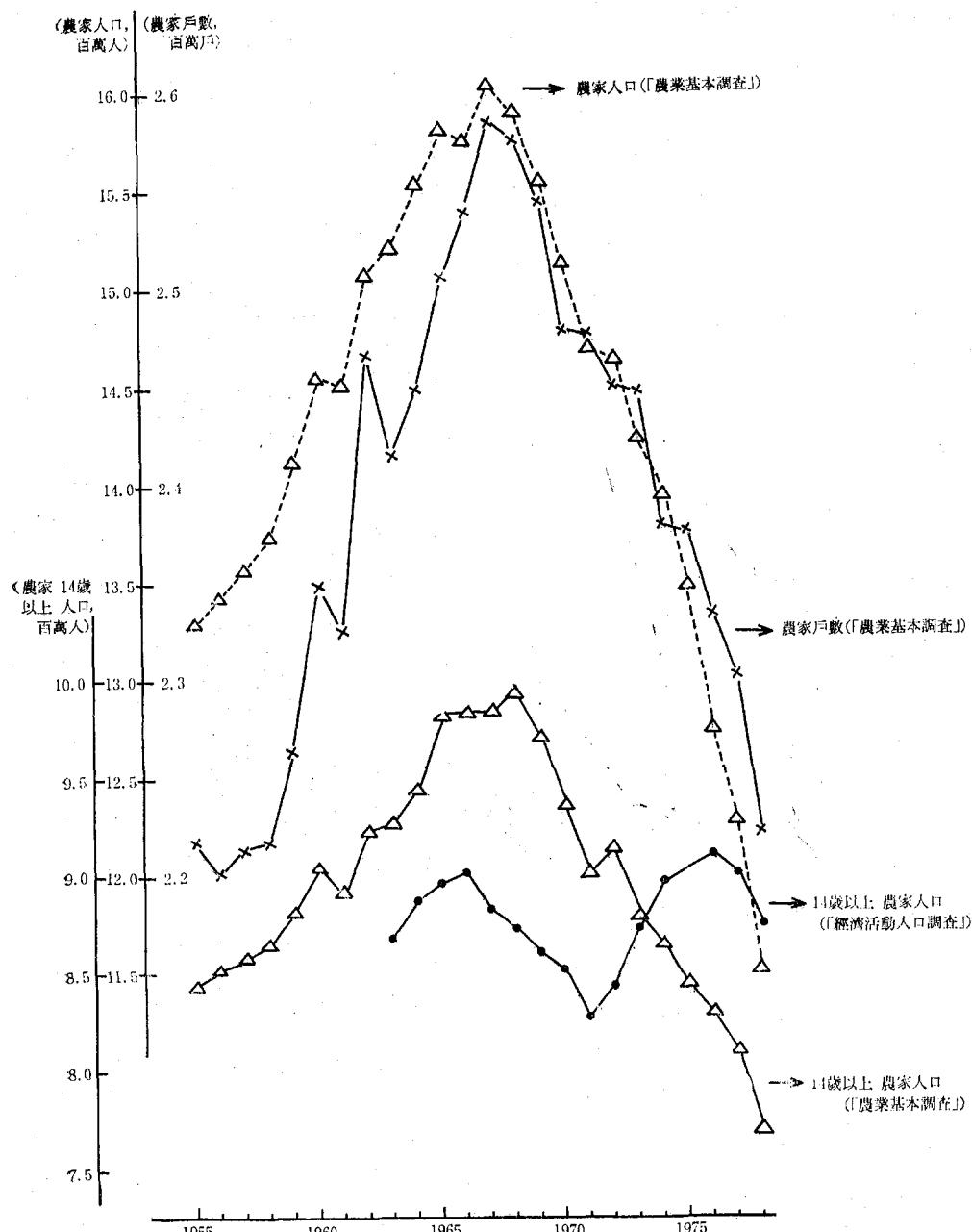
農業勞動力統計를 보기에 앞서 <그림 1>은 農家戶數, 農家人口 및 14歲以上 農家人口數에 관한 統計를 요약한 것이다. 農家戶數와 人口에 관해서는 우리의 觀察對象期間인 1955年 이래 「農業基本調查」의 年次別 時系列統計가 利用可能할 뿐이어서 다른 資料와의 比較가 불가능하다. 原資料에 대한 약간의 調整에 관해서는 <附表 3>에서 註記했지만 「農業基本調查」의 農家戶數 및 人口數는 1961年前後와 1973, 4年頃의 두차례에 걸쳐 약간의 異例의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時期에 있어서는 1961年的 「農林統計報告規則」變更과 1974年的 標本調查方式移行이라는 統計作成方法의 變化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原系列의 斷層내지 不連續의 움직임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1961年前後에 관해서는 그 變動幅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原系列대로 두고, 1973, 4年에 관해서는 原系列의 3個年移動平均值를 취하는 최소한의 調整에 그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原系列의 變動趨勢를 反映시키면서 調查方法變更에 따른 攪亂을 排除코자 하였다.

<그림 1>에 따르면 農家戶數와 農家人口는 1967年을 頂點으로 한 山峯樣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 增加에서 絶對數의 減少에로의 趨勢變動을 뚜렷이 보여준다.

한편 14歲以上 農家人口數에 관해서는 두가지의 統計資料가 이용가능하다. 그 하나는 「農業基本調查」의 年齡階層別 人口構成으로부터 算出한 系列이며, 또 하나의 것은 1963年 이래

(2) 韓國의 각종 統計調查에서 채용되는 農家の 定義는 1960年の 農業센서스를 포함해서 1967년까지는 「所有與何是 불문하고 경지(畠, 田, 樹園地) 300坪 이상을 직접 농사짓는 家口」를 말하였으나, 1968年부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家口로 확대되었다.

- ① 경지 300평[10a]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 ② 고등원이나 특용작물 100평[3a] 이상 또는 파수나 묘목 200평[7a] 이상을 재배하는 가구.
 - ③ 대가축(한우, 것소, 肉牛, 役馬) 1頭 이상을 직접 사육하는 가구.
 - ④ 증가축(돼지, 면양, 산양) 3頭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⑤ 소가축(토끼) 40마리 또는 가금(닭, 오리 등) 3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⑥ 꿀벌 5群 이상을 치는 가구.
 - ⑦ 糜種 12g(1箱) 이상을 摶麋하는 가구.
 - ⑧ 가구원 중 年間 勞動日數 90日 이상을 농업임금노동에 종사하거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30日 이상을 농업임금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家口.
- 단, []안의 數值는 1975年 セン서스에서 표시된 단위임.



資料：(附表 3)

(乙圖 1) 農業人口統計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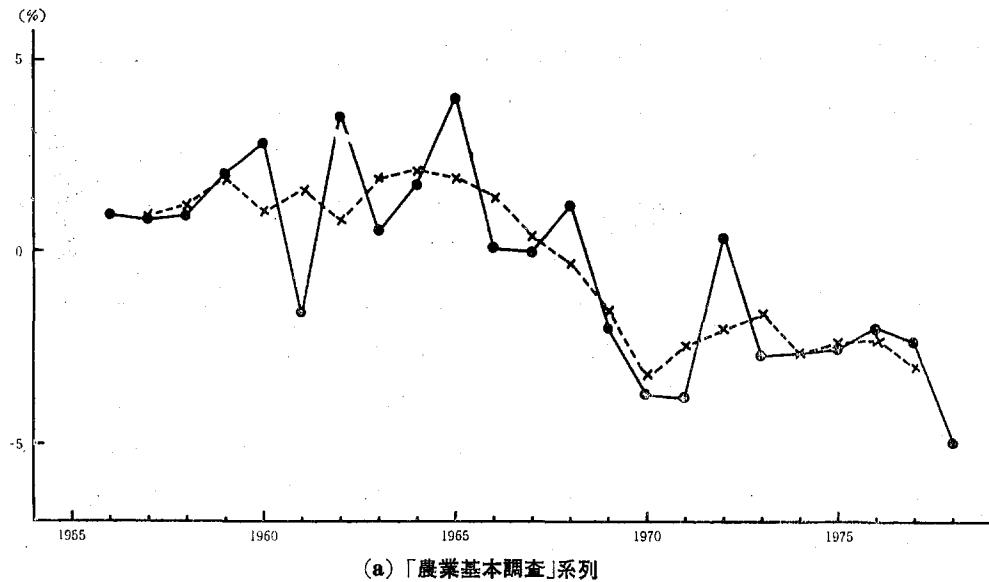
의 「經濟活動人口調查」결과이다.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農業勞動力의 源泉을 이루는 農家生產年齡人口의 크기 및 그 變動趨勢가 이 두가지 統計에서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다.

물론 이 두가지 系列은 각각 調查時點도 다르며 다른 調查機關에 의해서 다른 調查方法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一致하지 않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지도 모르나, 같은 農家の 定義에 따라 같은 實體에 관해 조사된 결과가 變動方向을 크게 달리한다는 것은 여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이들 두 系列 가운데 어느 쪽이 더 事實에 가까울 것인가를 判斷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지만, 農業勞動力스토크의 變動을 보려는 우리의 關心을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몇가지의 方法을 써서 각각의 系列의 妥當性을 읊미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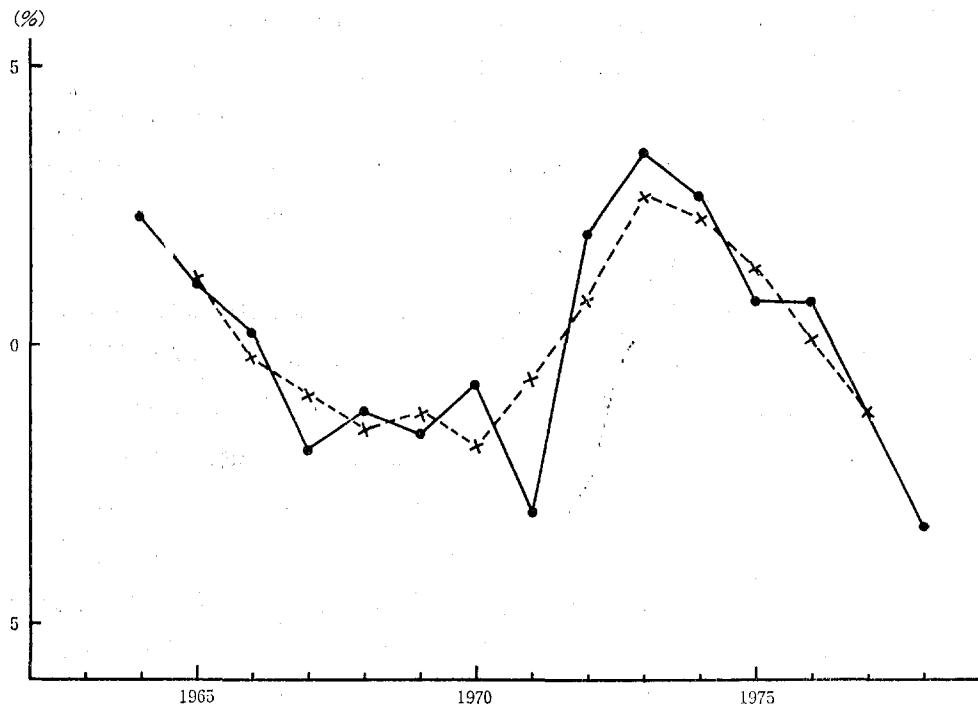
먼저 「農業基本調查」에서의 14歲以上 農家人口는 農家總人口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968年을 轉換點으로 增加로부터 減少로 逆轉되고 있다. 한편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의 그것은 1966年까지는 增加하다가 71年까지는 減少로 逆轉되었으나 72年 이후 76年까지는 다시 增加했다가 그 이후에야 다시 減少하고 있다. 즉 1963~78年間의 비교적 짧은 期間에 뚜렷한 雙峰曲線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事實을反映하는 것이라면 農家人口의 自然增加나 社會的 移動의 兩面에서 相應하는 說明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두 統計系列의 妥當性吟味를 위해 여기서는 두가지의 方法을 도입하기로 한다. 그 한가지는 各系列의 對前年增加率을 算出하여 보는 方法이다. 또 하나의 方法으로서 14歲以上 人口와 農業人口와의 比率을 算出해 그것이 얼마나 連續의이고 安定의인 움직임을 보이는가를 통해 그 統計系列의 信賴度의 指標로 삼기로 한다.

〈그림 2〉의 (a), (b)는 각각 「農業基本調查」와 「經濟活動人口調查」系列의 14歲以上 農家人口의 對前年增加率을 보인 것이다. 3個年 移動平均值의 움직임을 통해서 볼 때 「農業基本調查」통계의 그것은 1955~66年경까지는 1~2%의 수준에 머물다가 67, 8年을 지나면서 마이너스로 轉換된 이래 70年代에 들어서는 -2~-3% 수준을 上下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經濟活動人口調查」series의 그것은 일찌기 1960年代의 후반에 增加率이 -1~-2% 수준으로 저하했다가 70年代에 접어들면서 플러스로 反轉해서 73, 4年경의 2%臺를 頂點으로 다시 低下하기 시작하나 76年까지도 플러스의 數值得을 보이고 있다. 論議의 대상이 14歲以上 人口라는 年齡層 및 社會的 移動要因의 영향을 크게 받는 農業人口라는 制約은 있지만 年齡構成의 급속한 變化要因이나 農·都間의 人口移動에 있어 60年代와 70年代間에 급속한



(a) 「農業基本調查」系列



(b) 「經濟活動人口調查」系列

註：點線은 3개년 이동평균치임.

資料：〈附表 3〉

流出과 逆流라는 극히 對照的인 패턴으로의 移行要因을 찾아 볼 수 있는限, 「經濟活動人口調查」系列의 움직임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1950年代의 終戰後의 出產물의 영향은 두 series에서 共通의으로 70~74년경의 14歲以上 人口增加率의 反騰傾向으로反映됨을 볼 수 있으나 그 要因만으로 불과 3, 4年間에 5% 포인트에 이르는 年間增加率의 急增現象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社會的 變動의 要因을 보면 離農人口의 比率은 幼少年人口보다는 生產年齡人口 특히 青壯年層의 比重이 계속 높아왔으므로 高齡層의 農家內의 堆積傾向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農家人口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14歲以上 人口의 增加率을 그렇게 끌어올릴 것으로 想定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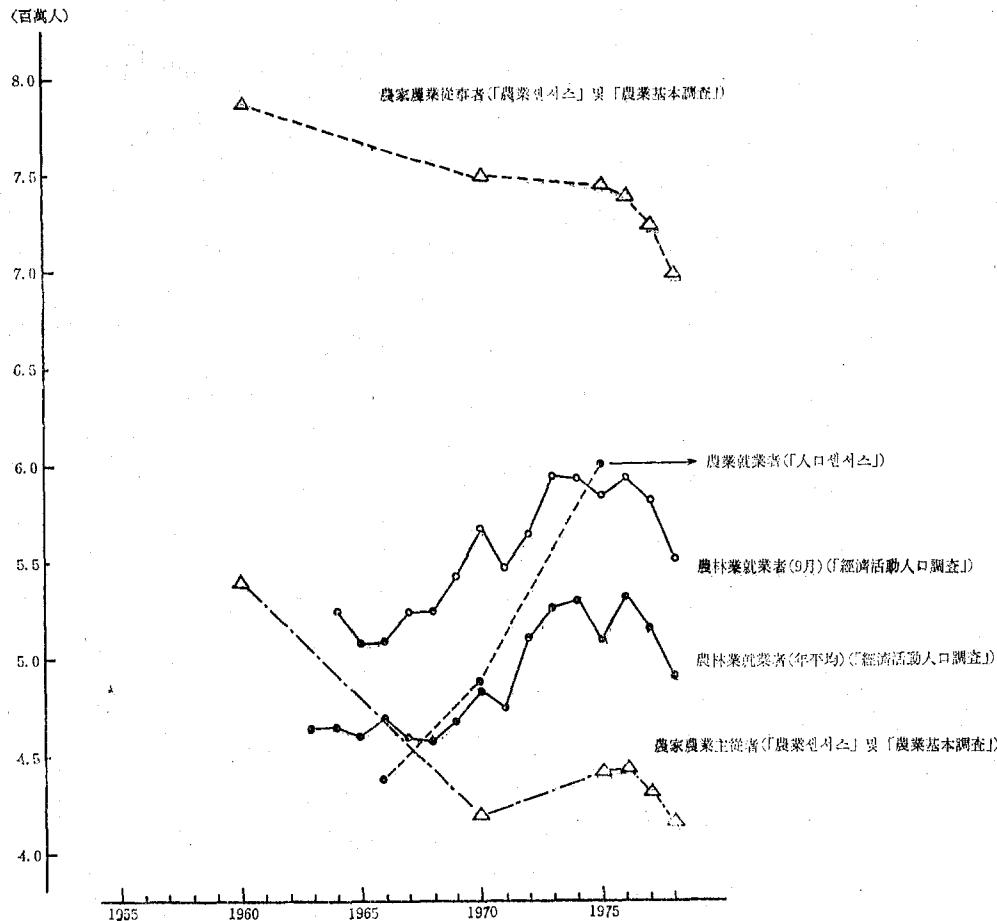
다음으로 14歲以上 人口의 農家人口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变동을 보기 위해서는 各 series의 農家人口統計가 있어야 하나 「經濟活動人口調查」는 調查對象이 標本家口內의 14歲以上 人口에 局限되므로 農家人口統計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의 검토는 「農業基本調查」series에만 머물지 않을 수 없다. 14歲以上 人口의 農家人口에서의 比重은 「農業基本調查」series에서 보면 1955年の 63%수준에서 64年的 61%까지 근소한 저락을 보이다가 그 이후 매우 완만한 上昇을 보여 76年에는 65%, 77年에는 67%에 이르고 있다. 이를 男女別로 보면 女子가 男子에 비하여 2~3% 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거의 平行線을 이루고 있으며 變動의 方向도 거의一致됨을 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의 戰後의 出產物으로부터 出生率의 低下로의 移行과 平均壽命의 延長 등 사실과 附合되는 方向이라고 볼 수 있다 (뒤의 <그림 5> (a), (b), (c) 참조).

위의 두가지 指標에 의한 검토를 통해서 볼 때 「農業基本調查」의 農家人口統計는 비교적 信賴度가 높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經濟活動人口調查」의 14歲以上 農業人口統計는 아마도 5年마다 실시되는 「人口센서스」의 調查를 기준으로 抽出한 各種家口를 嘗라한 標本調查라는 性格上의 制約性 때문에 農家生産年齡人口의 總體의 規模를 파악하기 위한 目的에는 그리 適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그렇다고 「經濟活動人口調查」가 지난 유일한 勞動力調查로서의 重要性이 看過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同調查는 勞動力接近에 따른 몇가지의 經濟活動關聯指標들 즉 經濟活動參加率, 就業率 및 農家就業者 중 農林業就業者の 比率 등 分析上の 중요한 概念의 時系列資料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4. 農業就業者統計의 比較

여기서는 직접 農業에 종사하는 就業者數에 관한 既存의 公式統計를 比較吟味해 보기로 한다.

<그림 3>에는 「人口센서스」, 「經濟活動人口調查」, 「農業센서스」 및 「農業基本調查」 등 네



資料：〈附表 2, 4, 5〉

〈그림 3〉 農業就業者統計의 比較

가지의 利用可能한 統計調査結果로부터 어느 정도 一貫性이 인정되는 時系列資料들을 모은 것이다.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農業센서스」와 「農業基本調查」는 有業者接近法에 의한 調査結果이며, 「人口센서스」(1960년 이후의)와 「經濟活動人口調查」는 調査對象期間이 반드시一致하지는 않으나 勞動力接近法에 의한 조사결과이다. 또 調査의 성질상 「經濟活動人口調查」를 제외한 다른 調査들은 센서스年度 및 1976年 이후(「農業基本調查」)에 국한되어 있어 年次別 變動傾向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림 3〉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查」의 農林

業就業者⁽³⁾에 관해서는 年平均值 이외에 9月值를 따로 보인 것은 他調查가 9月 또는 10月을 調查時點으로 한 때 비추어 比較性을 높이기 위함이다.

各統計系列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먼저 「經濟活動人口調查」의 農林業就業者는 앞서 본 <그림 1>의 14歲以上 農家人口와 마찬가지로 1973, 4年경까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감소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1977年경 이후 최근의 일이다. 다만 14歲以上 人口의 움직임과 다른 점은 1960年代 後半期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증가경향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는 農家生產年齡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 특히 女性的 그것이 1967年경부터 73年경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데에 基因하는 것 같다(<그림 5> (a), (c) 참조). 이는 農家の 青壯年男子勞動力의 流出 속에서 自家營農의 勞動需要를 婦女子勞動으로 充當하려는 農家の 對應을反映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다만 急速한 工業化에 따른 農業勞動의 활발한 流出에도 불구하고 農林業就業者가 70年代 中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14歲以上 農家人口의 變動傾向을 다룰 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의 理由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966, 70, 75年の「人口센서스」는 모두가 9月下旬의 一週間의 實地활동을 기준으로 한 劳動力接近法에 따른 標本調査의 결과이므로, 만약 定義나 調査實施上의 큰 차이가 없다면 같은 方式에 따른 調査結果인 「經濟活動人口調查」의 같은 年度의 9月值와 크게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 70兩年の 就業者數는 「人口센서스」결과에 비해 「經濟活動人口調查」결과가 16.1%와 17.2%나 많게 되어 있으며 1975年の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단한 검토만을 가지고 이를 두가지 統計에 대한 充分한 評價를 내릴 수는 없으나 그 數值를 단순히 利用하기에는 慎重한 配慮가 앞서야 할 것임을 알게 된다.

人口調查의 範疇에 속하는 위의 두가지 系列에 있어 農業就業者數가 꾸준히 늘어온 데 反對, 「農業센서스」와 「農業基本調查」를 연결한 系列에서는 1970年과 75年 사이에 農業主從者가 근소한 增加를 보인 것을 예외로 하면 農業從事者數는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農業從事者數가 줄어드는 속에서 70年代의 前半期에 있어 主從者數가 약간 늘어난 것은 全般的인 勞動力流出 속에서 主婦農業勞動의 日常化現象이 두드러지게 진전된 사실을反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農業從事者와 農業主從者數間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는 農作業의 季節的 繁閑이 심한 것과 年間 短期間만을 농업에 참여하-

(3)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는 農業就業者만의 獨立된 분류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林業에 주로 就業하는 사람의 數는 极히 微微하며 대부분 農業에 부수되는 活動으로 林業을 영위하고 있는 實態에 비추어 본다면 實質적으로는 他調查의 農業就業者와 같이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는 補助的 労動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가리킨다.

위의 몇가지 利用可能한 公式統計의 比較檢討를 통해서 볼 때 農業勞動力의 定義를 어떻게 하여 어떠한 調查方法을 쓰는가에 따라 總體的 규모에 있어 엄청난 差異를 빚게되는 점에 특히 留意해야 할 것이다.

農業就業者統計의 不充分性을 다소나마 補完함으로써 그 規模 및 變動 特性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으로서 여기서는 「農家經濟調查」⁽⁴⁾ 결과에 나타난 情報를 加工해서 採用해 보고자 한다. 「農家經濟調查」의 家口員狀況調査에서 우리는 標本農家の 營農從事者 중 常時從事者와 臨時從事者の 數에 관한 情報를 얻을 수 있다. 이 調査에서의 營農從事者는 「農業센서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간 7개월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常時와 臨時從事者로 구분된다.

「農家經濟調查」의 戶當 平均家口員數, 營農從事者數 및 常時營農從事者數에다 「農業基本調查」의 農家戶數를 곱해서 推定한 農家人口, 營農從事者數 및 常時營農從事者數를 각각 보인 것이 <그림 4>이다. 물론 「農家經濟調查」의 家口員狀況에 관한 調査 자체가 勞動力統計로서는 그렇게 엄밀한 것은 아니며 「農業센서스」의 有業者概念에 따른 대체적인 경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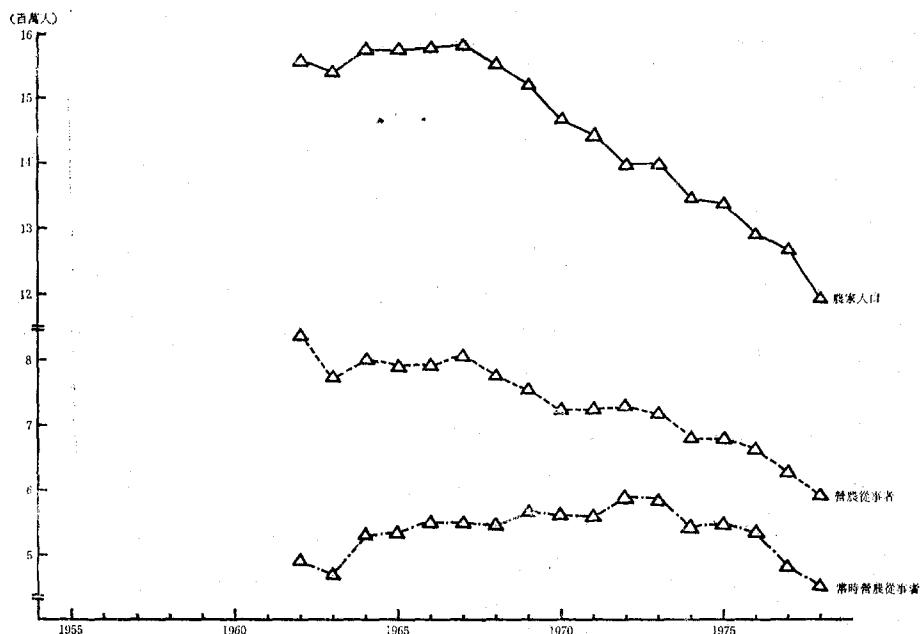
(4) 戰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農家經濟調查는 「農村實態調查」라는 이름 아래 韓國銀行과 農林部가 공동으로 1953年 7月부터 유의선정된 300戶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이다. 54年 7月부터는 두 機關이 분리 조사하게 되었는 바, 農林部는 유의선정된 전국 33개 調査區 330戶의 對象農家(평야, 중간, 산간 등 3개지대와 ~0.5, 0.5~1.0, 1.0~2.0, 2.0~町步 등 4개층으로 구분됨)에 대해 17개 조사구는 「農家經濟調查」를 나머지 16개 조사구는 「米麥生産費調查」를 그해 그해의 사정에 따라 併合 또는 分離 실시해 왔다. 調査項目에는 가구원, 경지면적, 農家收支, 재산 및 부채, 노동상황이 포함되었으나 극히 개략적인 全國平均值 이외에는 조사결과가 公表되지 않아 利用이 不可能하다.

50年代의 조사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 代表值로서의 신뢰성이 낮고 유의표본방식이 채용된 결과 推定誤差計算이 곤란한 등의 단점은 補完하기 위해 1961年에 주요한 개편이 이루어져 統計法에 따른 指定統計의 하나로 되었다. 주요한 개편내용은 ① 표본선정을 1960年の 센서스를 기초로 한任意標本方式으로 바꾸고 標本數를 80개 조사지구 1,200戶로 늘리며 ③ 조사내용도 生計費調查爲主로부터 경영·소비 양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바꾸었으며 ⑧ 농가계층을 5계층 (~0.5, 0.5~1.0, 1.0~1.5, 1.5~2.0, 2.0~町步)으로 세분한 점 등이다.

그후 1973年에는 70년센서스를 기초로 새로이 설계된 標本으로 바꾸었으며, 74年부터는 표본수를 160개 조사지구 2,518戶로, 77년부터는 225개 조사지구 3,375戶로 각각 늘려 精度를 높이고 農業地帶別 分析이 가능하도록 확충되었다.

「農家經濟調查」의 調査對象은 60년센서스當時의 農家定義에 따랐으므로 경지 1段步미만 경작 농가는 제외되고 있다.

이밖에 1962年 이래 「農家經濟調查」가 指定統計 8호로 農林部에 一元化되기 이전에는 韓國銀行과 農業銀行(및 統合農協)에 의해서도 別途調查가 행해져 왔으며 그 결과가 公表되어 있어 利用可能하다. 韓國銀行은 1954年 7月 이후 單獨으로 농촌지대별 유의표본에 의해 生計費爲主의 조사(物價指數의 加重値를 얻기 위함)를 해오다가 58年부터 임의표본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농가 노동투하,施肥量 등 物量收支項目을 첨가한 경영조사를補強하였다. 한편 農業銀行도 1958年 6月부터 전국 630戶 농가를 대상으로 한 獨자적인 경제조사를 실시했던 바, 이 조사의 특징은 韓國銀行의 그것이 生計中心인 데 비해 농업경영면 특히 농업노동, 축력사용, 노임, 농작물생산량, 농가금융 등에 比重이 두어졌던 점에 있다.



資料：〈附表 6〉

〈그림 4〉 「農家經濟調查」로부터 推定된 營農從事者數

반영하는 데 지나지 못할 것이지만, 總體的 勞動力規模의 變動方向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資料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系列은 1961年의 同調查의 改編에 이어 1962年 이래는 一貫性 있는 時系列을 지니는 점에서 調查頻度가 적은 他系列에 비해 有用性이 높다. 흔히 「農家經濟調查」 결과를 利用함에 있어 標本의 上方偏倚問題가 지적된다. 물론 同調查의 對象에서 耕地 1段步未滿의 下層農家를 除外하고 있으며 調查實施過程에서 日計表의 記帳能力 등 요인으로 해서 약간의 上方偏倚傾向이 나타나기 쉬운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筆者の 試算에 의하면 1965, 70, 75 등 3個年度의 戶當 平均所得의 數值은 「農業基本調查」의 農家階層構成比를 加重值로 한 階層別 計算結果에 비해 약 5%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標本의 上方偏倚問題는 同調查資料의 利用에 있어 약간의 고려는 있어야 하지만 그의 결정적인 제약은 뜻된다고 하겠다.

〈그림 4〉에 보인 推定된 營農從事者數는 〈그림 3〉에서 보인 「農業센서스」 및 「農業基本調查」의 農家農業從事者의 개념에, 常時營農從事者數는 農家農業主從事者의 개념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두 數值得 직접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異質의이지만 變化의 方向에 있

여서는 대체로 흡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1960年の「農業セン서스」의 主從者數는 异例的으로 높으나) 「農家經濟調查」 결과를援用한推定에서 우리는 農家家口員規模의 점차적인 축소와 農家戶數의 감소추세 아래서 營農從事者의 總數는 1960年代中盤까지의 800萬人線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소과정을 거쳐 78年에는 600萬人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나 60年代後半以來의 青壯年勞動力의 大量流出過程에서 農業部門內의 勞動力需要에 對處하기 위해 常時營農從事者數는 相對的으로뿐 아니라 絶對的으로도 약간의 增加를 보였으며 72, 3年을 고비로 常時從事者의 數도 감소의 길을 걷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利用可能한 既存의 公式統計를 比較 검토함으로써 戰後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의 農業勞動力의 規模 및 變動에 관한 事實에 가까운 理解에 도달하고자 노력해 왔다. ⁽⁵⁾ 그러나 既存의 農業就業者에 관한 統計나 그 源泉이 되는 14歲以上의 農家人口에 관한 統計系列은 각각의 調查가 채용한 定義, 調查方法, 對象農家の 標本抽出方法 등의 差異 때문에 현저한 差異를 지닐 뿐 아니라 調查期間이나 頻度의 制約性 때문에 이용가능한 時系列이 짧아 우리의 關心인 戰災復舊期 이래의 全期間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既存統計利用上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戰後期의 農業勞動力變動에 관한 一貫性있는 時系列資料를 統一的이며 비교적 엄밀하게 定義된 개념에 따라 推計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研究의 다음 節에서의 과제이다. 推計對象期間은 時系列의 延長을 위해 社會經濟的條件의 變動이 심했던 6. 25를 포함한 時期까지 소급하는 것을 회피하여 戰後 農家人口 및 農業生產活動이 어느 정도 安定軌道에 들어섰던 1955年에서 1978年에 局限하였다.

III. 農業勞動力規模變動의 推計

1. 既存의 推計研究

農業勞動力統計가 지난 研究上의 制約이 큰 데도 불구하고 筆者が 아는限り 그 制約을 완화하기 위한 研究努力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관련된 先行研究로서는 潘性紳教授와 日本의 加藤・楠田兩人的研究를 들 수 있을 뿐이다.

潘性紳教授는 戰後韓國農業에 있어서의 總生產, 總投入, 總生產性의 變化와 그 要因에 관한 計量的 分析研究의 一環으로 農業勞動投入量의 推計作業을 행했으며, 그 토대로서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調查」資料가 이용될 수 없는 1955~62年期間에 관한 農家經濟活

(5) 위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던 公式統計로는 内務部統計局이 1957年 이래 1962年까지 (「經濟活動人口調查」가 실시된 때까지) 行政報告方式으로 每月 조사해 온 「勞動力調查」가 있으나 系列의 安定性이 낮아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動人口를 別途로 推計해서 그 이후에 관한 「經濟活動人口調查」系列에連結 使用하고 있다.⁽⁶⁾ 그의 主된 研究關心은 勞動投入量의 時系列資料를 마련하는 데 있으므로 農業勞動力 스토크에 관해서는 既存의 利用可能한 公式系列인 「經濟活動人口調查」가 缺如된 期間에 관한 補完作業에 그친 셈이다. 潘教授는 1955~62年間의 農家經濟活動人口를 推計함에 있어 1963年 이후의 「經濟活動人口調查」와 全期間에 관한 農水產部의 「農業基本調查」系列의 年齡別 農家人口를 기초로 사용하였다. 推定方法은 먼저 各年齡階層內의 農家人口는 各年齡層에 均等分布되어 있다는 假定 아래서 1963年 이후의 年齡階層區分과 같은 階層의 人口를 推定하고, 그 人口數에 經濟活動參加率을 곱해 農家經濟活動人口를 推計하였다. 얻어지는 推計值는 參加率의 變動에 따른 效果를 제외한다면 基本的으로는 農家生產年齡人口의 變動에 比例하는 性質을 지니게 마련이다. 1955~71年間의 農家經濟活動人口에 관한 潘性紹 推計系列은 뒤의 <그림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55~62年間은 本研究에서의 推計結果와 매우 類似하며, 그 이후부터 1971年에 이르는 期間은 「經濟活動人口調查」系列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62年 以前에 관해 潘推計와 筆者의 그것이 매우 유사한 것은 基本적으로 兩者가 「農業基本調查」의 農家成人人口를 바탕으로 삼은 데 基因한다. 다만 兩者間의 僅少한 差異는 農家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의 推定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潘教授는 자료가 이용가능한 1963年 이후에 관해 「農業基本調查」의 年齡階層別 農家人口와 「經濟活動人口調查」의 年齡階層別 農家經濟活動人口로부터 算出된 年齡階層別 經濟活動參加率을 얻고 그 變動趨勢를 감안하여 1955~62年間의 農家經濟活動人口를 推計하였다. 그러나 筆者의 比較 檢討(앞의 II-3節 참조)에 따르면 「農業基本調查」와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의 14歲以上 農家人口數間에는 현저한 差異가 있어 兩者를 連結시켜 算出한 比率의 實體的意義는 매우 의문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963年 이후의 期間에 관해서는潘教授는 基本적으로는 「經濟活動人口調查」series을 採用하고 있어 뒤에서 보는 우리의 推計와는 아주 다른 方向의 움직임을 나타나게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여기서 따로 言及하지 않지만 「經濟活動人口調查」의 14歲以上 農家人口series이 지난 問題點이 그대로 남겨되는 셈이다.

또 하나의 關聯研究로서는 日本의 人口學者들인 가또와 구수다가 韓國, 臺灣, 香港, 菲律賓 등 아시아 4個國의 1950年代의 労動力推計를 시도한 아주 一次的인 研究의 一環으로 행한 1951~65年間의 韓國의 1次產業就業者推計를 들 수 있다. 이들은 ILO의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에 실린 1960, 65兩年の 產業別, 從事上의 地位別 労動力統計를 基礎로 이들 基準年次間의 複利方程式을 쓴 補間 및 補外라는 機械的인 方法을 써서 1951~65年間의

(6) 潘性紹,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1974, pp. 132~5 및 166.

農·林·漁·狩獵·礦·採石業을 포함한 1次產業就業者數의 時系列資料를 推計하였다.⁽⁷⁾ 그러나 그들의 推計作業은 基準年次의 資料(1960年은 「人口센서스」, 1965年은 「經濟活動人口調查」로 보임)에 대한 含味나 一貫性檢討를 缺하고 있을 뿐 아니라 推計對象期間 중에 6·25와 그후의 復舊過程이라는 社會經濟的 激變期가 포함된 데에 대한 配慮가 이루어지지 못한 등의 점에서根本的인 弱點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農家經濟活動人口 및 農林業就業者의 推計(1955~78)

相當한 期間에 걸쳐 一貫性을 지닌 勞動力스토크의 推計를 위해서는 먼저 採用되는 概念定義를 명백히 해두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勞動力調查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어 有業者接近과 勞動力接近이 있으며 이들 두가지 基準에 따라 調查된 몇가지의 資料가 있다. 勞動市場을 통해 雇傭과 賃金이 同時에 결정되는 近代的 賃勞動制度 아래서와는 달리, 家族勞動을 중심으로 한 小農經營 아래서 勞動力接近에 따라 就業과 失業을 區分하고, 農作業의 季節性이 심한 米麥作爲主의 農業 아래에서 經濟活動人口와 非經濟活動人口를 일정한 調查對象期間의 實際活動을 기준으로 區分한다는 點에서는 勞動力接近法은 약간의 問題點이 없지 않다. 그러나 年間의 通常의 狀態를 기준으로 하는 有業者接近法에 따르면 勞動力人口와 非勞動力人口의 區分, 또는 就業의 季節的 變動 등 具體的인 內容의 把握이 매우 곤란해지게 된다. 또 援用可能한 資料面에서 볼 때는 1963년 이래 4分期別 時系列을 갖춘 「經濟活動人口調查」는 農家生產年齡人口의 經濟活動參加與否, 就業率, 農家就業人口 中의 農業就業者比率 등의 指標에 관해 男女別로 비교적 信賴度가 높은 資料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우리의 推計에서는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 채용되고 있는 勞動力接近法을 따라 農業勞動力스토크의 規模 및 그 變動을 파악하기로 한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勞動力스토크의 時系列은 農業就業者數이지만, 推計方法 및 節次에 따라 農家經濟活動人口, 農家就業者數의 1955~78年の 時系列도 부수적으로 얻어진다.

農業就業者推計에 있어 우리는 農業勞動力의 크기는 基本的으로는 農家人口의 크기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假定한다. 물론 理論上으로는 家計로서의 農家과 產業으로서의 農業은 別個의 개념으로 區分되어야 할 것이지만, 實態의으로 볼 때 勞動供給의 대부분을 家族勞動에 의존하고 일부분만을 部落內의 他農家 또는 非農家로부터의 供給에 의해서 充足하는 農營構造 아래서는 非農家로부터의 農業部門에 대한 勞動供給은 크게 문제되지 못한다.

農家人口의 크기를 農業勞動力供給의 源泉으로 보고 勞動力接近法에 따를 때 農業就業者

(7) アジア經濟研究所, 『アジア4カ國の勞動力推計, 1951~61年 — 韓國, 臺灣, 香港およびフィリピン』, (アジアの勞動事情研究會資料 No. 4), 1968. 11 (臘寫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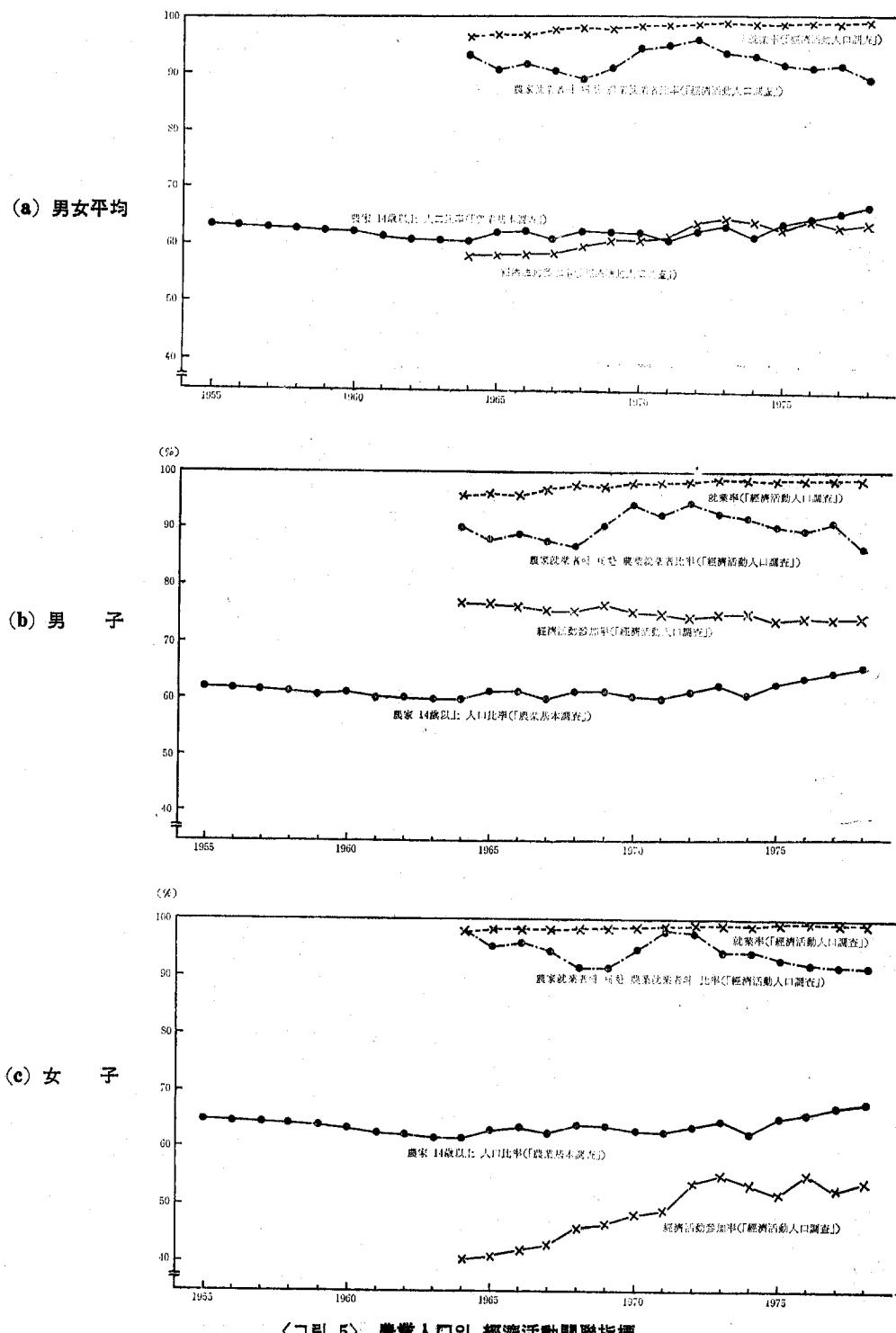
數의 變動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로서는 다음 몇 가지의 變數를 들 수 있다.

- ① 農家人口 중 生產年齡人口의 比率 (韓國의 定義로서는 14歲以上 人口).
- ② 生產年齡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 (財貨와 서비스의 生產을 위해 勞動을 제공할 의사와 能力이 있는 사람의 比率).
- ③ 經濟活動人口 中의 就業率 (農業을 포함한 全產業에 就業한 사람의 比率).
- ④ 農家就業者總數에 대한 農業就業者數의 比率.

만일 우리가 農家人口의 크기 외에 위에 든 4가지 變數들에 관해 신뢰할만한 時系列資料를 얻을 수 있다면 農家 및 農業勞動力의 크기에 관한 推計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앞 節에서의 검토를 통해 農家の 生產年齡人口統計로서는 1955年 이래의 全期間에 관해 최소한의 調整을 거친 「農業基本調查」系列을 採用하고, 經濟活動參加率·就業率 및 農家就業者에 대한 農業就業者의 比率 등의 指標는 「經濟活動人口調查」의 그것을 援用하기로 하였다. 이들 모든 變數는 가능한限性別年齡階層別로 細分해서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서는 資料事情上男女別로 區分推計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에 든 몇 가지의 經濟活動關聯指標에 관한 原資料의 信賴性을 보고자 圖示한 것이 <그림 5>의 (a), (b), (c)이다. 「農業基本調查」의 14歲以上 農家人口比率에 관해서는 重言을 피하고, 그밖의 세 가지 指標에 관해서만 男女別로 나누어 그 움직임을 간단히 관찰해 보기로 하자. 먼저 經濟活動參加率의 1963年 이후의 움직임은 男子의 그것이 76~74%선에서 근소한 低落을 보이면서 安定的인 반면 女子의 그것이 40%에서 55%까지 急上昇을 보이고 있는 점은 男子에 있어서의 中等教育의 普及, 男子勞動力의 流出에 따른 婦女勞動參加의 急增 등의 事實에 비추어 實態의 變動을 비교적 잘反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農家經濟活動人口의 就業率이 男女 모두 96%내지 99%의 수준에서 매우 安定的이며 僅少하게 나마 完全失業率이 낮아가는 움직임도 農村勞動力不足化的 진전에 符合되는 變動이라고 보겠다. 다만 農家就業者에 대한 農業就業者의 比率이 60年代後半의 90% 전후로부터 70年代前半에 들면서 95%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진 점은 工業化에 따른 農家兼業化의 진전을 감안할 때 納得하기 어려운 움직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農家經濟調查」의 全階層平均 家口當 有業者數에 대한 營農從事者數의 比率이 60年代 후반에 약간 低落한 이래 70年代를 통해 매우 安定的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이며 「農家經濟調查」에 나타난 傾向이 오히려 事實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 얻는 經濟活動關聯指標를 推計에 援用함에 있어서의 한 가지 制約은 1962年以前期間에 관한 原資料의 缺如이다. 이 初期의 期間에 관해서는 適切한 假定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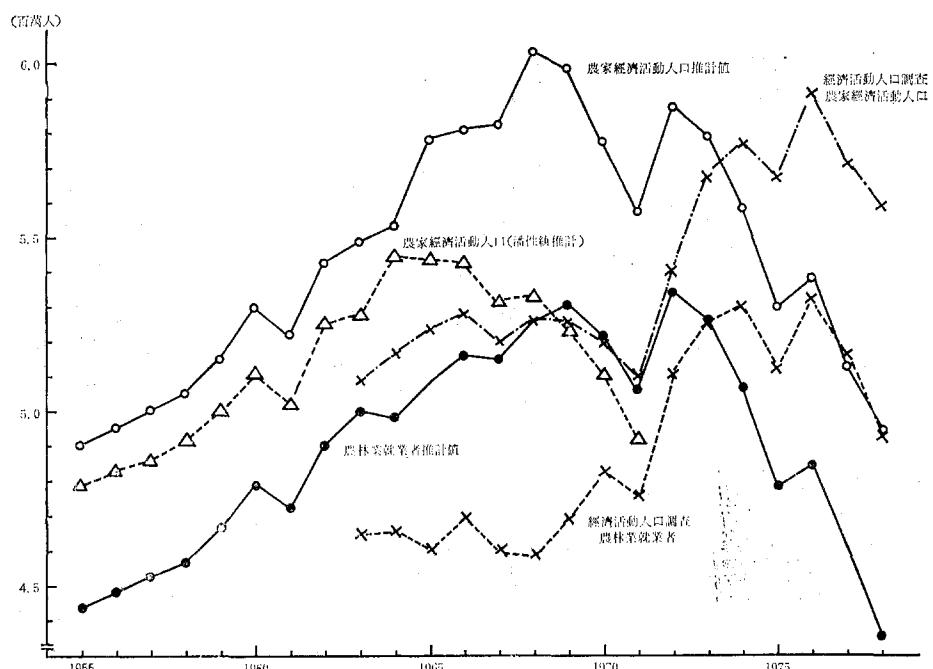


〈圖 5〉 農業人口의 經濟活動關聯指標

導入해서 각指標에 관해 推定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1962年以前의期間이 農家成員의 經濟活動을 둘러싼 與件變動이라는側面에서 볼 때 그 이후의 高度成長期에 비해 매우 靜態的인 時期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후의 趨勢를 소급 연장하는 補外法보다는 資料가 이용 가능한 60年代初 中盤의 어떤 妥當한 比率이 1955年 이래 持續되었다고 假定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다룬 推計에 필요한 各種의 指標를 모은 것이 <附表 7>이며, 이를 指標들을 援用하여 算出된 推計結果를 順次로 보인 것이 <表 1>이다. 또 우리의 推計値를 같은 勞動力接近法을 채용한 公式系列인 1963~78年間의 「經濟活動人口調查」系列 및 1955~71年을 對象期間으로 한 潘性紳教授의 農家經濟活動人口推計結果와 對比한 것이 <그림 6>이다. 潘性紳教授의 推計에 관해서는 앞서 言及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經濟活動人口調查」系列과 筆者の 推計結果와의 比較에 관해서만 간단히 보기로 한다.

먼저 農家の 經濟活動人口規模는 「經濟活動人口調查」series에서는 1976年的 591萬人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增加해 온 데 反하여 筆者の 推計結果로는 農家人口의 감소가 시작된 1968年的 604萬人을 頂點으로 하여 완만한 감소 경향으로 轉換되었으며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資料：<附表 8>

<그림 6> 農家經濟活動人口 및 農林業就業者數推計結果 比較

〈表 1〉 農家經濟活動人口與農業就業者推計結果
(単位: 千人)

	農家人口			14歳以上農家人口			農家經濟活動人口			農家就業者			農業就業者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1955	13,300	6,475	6,825	8,441	4,018	4,423	4,933	3,134	1,769	4,742	3,009	1,734	4,437	2,738	1,699
1956	13,445	6,559	6,886	8,519	4,068	4,451	4,953	3,173	1,780	4,791	3,046	1,745	4,482	2,772	1,710
1957	13,592	6,663	6,929	8,586	4,123	4,463	5,001	3,216	1,785	4,837	3,087	1,749	4,524	2,810	1,715
1958	13,750	6,772	6,978	8,659	4,174	4,485	5,050	3,256	1,794	4,884	3,125	1,758	4,567	2,844	1,723
1959	14,126	6,969	7,156	8,835	4,256	4,579	5,151	3,320	1,832	4,982	3,187	1,795	4,659	2,900	1,759
1960	14,559	7,154	7,405	9,081	4,384	4,697	5,298	3,420	1,879	5,124	3,283	1,841	4,792	2,987	1,804
1961	14,509	7,166	7,342	8,928	4,336	4,592	5,219	3,382	1,837	5,047	3,247	1,800	4,719	2,955	1,764
1962	15,097	7,535	7,561	9,245	4,544	4,701	5,425	3,544	1,880	5,245	3,403	1,843	4,902	3,096	1,806
1963	15,266	7,642	7,624	9,295	4,585	4,710	5,484	3,558	1,926	5,326	3,441	1,886	5,000	3,148	1,852
1964	15,553	7,794	7,759	9,454	4,672	4,782	5,534	3,593	1,941	5,341	3,442	1,899	4,978	3,115	1,883
1965	15,812	7,962	7,850	9,831	4,884	4,947	5,779	3,751	2,028	5,600	3,608	1,992	5,079	3,183	1,896
1966	15,781	7,911	7,870	9,844	4,856	4,988	5,810	3,710	2,100	5,630	3,565	2,064	5,162	3,180	1,982
1967	16,078	8,067	8,011	9,845	4,846	4,999	5,823	3,668	2,155	5,685	3,569	2,116	5,148	3,148	1,999
1968	15,908	7,994	7,914	9,965	4,918	5,047	6,035	3,713	2,322	5,920	3,635	2,284	5,255	3,163	2,093
1969	15,589	7,840	7,749	9,746	4,811	4,935	5,990	3,695	2,295	5,859	3,599	2,260	5,309	3,284	2,070
1970	(15,151)	(7,609)	(7,542)	9,390	4,625	4,765	5,775	3,478	2,297	5,682	3,415	2,267	5,221	3,074	2,147
1971	14,712	7,378	7,335	9,033	4,439	4,594	5,576	3,329	2,246	5,492	3,273	2,220	5,054	2,945	2,109
1972	14,677	7,400	7,277	9,172	4,551	4,621	5,877	3,390	2,486	5,797	3,336	2,461	5,341	3,003	2,338
1973	(14,261)	(7,196)	(7,065)	8,921	4,435	4,486	5,793	3,326	2,467	5,736	3,293	2,443	5,267	2,964	2,303
1974	(13,783)	(6,947)	(6,836)	8,685	4,310	4,375	5,581	3,245	2,336	5,514	3,206	2,308	5,065	2,886	2,179
1975	13,244	6,654	6,590	8,464	4,176	4,288	5,303	3,082	2,221	5,239	3,036	2,203	4,783	2,732	2,051
1976	12,785	6,438	6,348	8,302	4,115	4,187	5,381	3,066	2,315	5,330	3,029	2,302	4,844	2,720	2,124
1977	12,309	6,180	6,129	8,114	4,007	4,107	5,133	2,977	2,156	5,077	2,938	2,139	4,608	2,645	1,964
1978	11,527	5,761	5,766	7,715	3,791	3,924	4,943	2,824	2,119	4,900	2,796	2,104	4,353	2,421	1,932

註: ()안은 調整值임.

資料: <附表 7>

減少趨勢는 加速化되기 시작하여 1978年에는 500萬人線을 下廻하게 되었다. 이 러한 兩系列間의 현저한 差異는 本推計가 農家經濟活動人口推計의 土臺로서 「經濟活動人口調查」와는 달리 「農業基本調查」系列을 採用한 데에 基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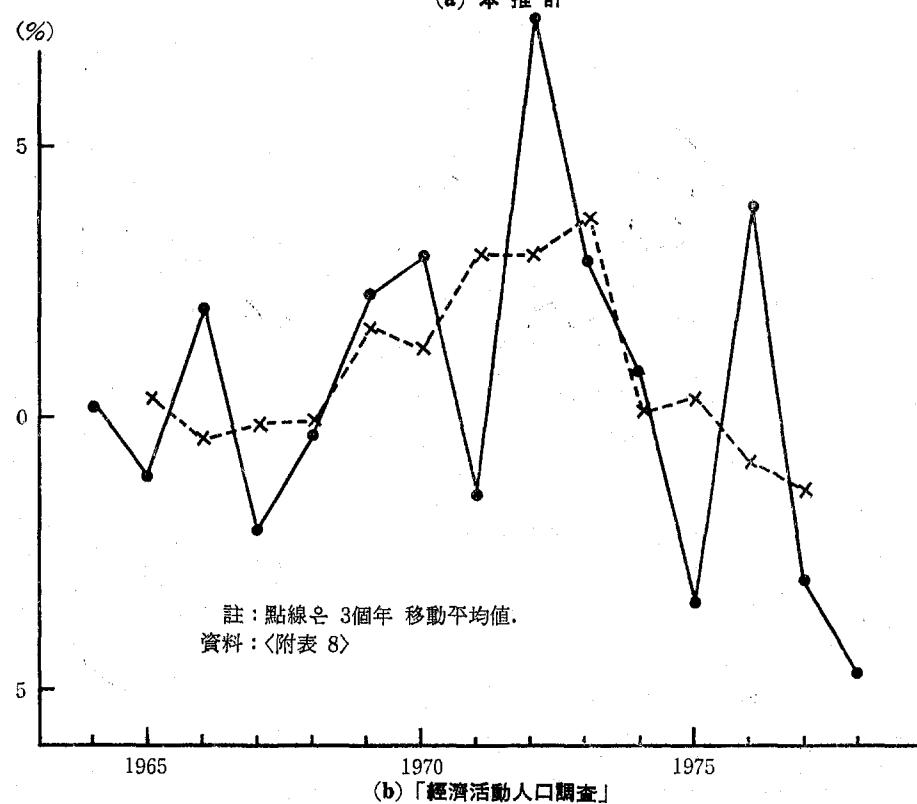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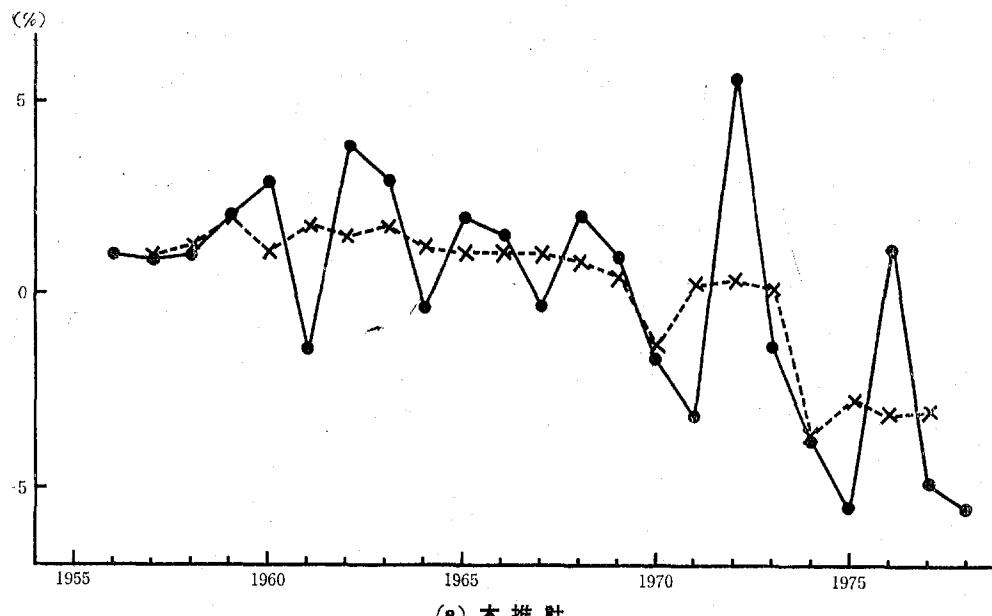
다음 農林業就業者數에 관해서도 農家經濟活動人口變動에서 兩系列 사이에 보인 傾向의 差異가 거의 그대로 反映되고 있어 「經濟活動人口調查」에 있어서의 農業就業者數는 1963年的 464萬人으로부터 70年代에 들면서 급속히 增加된 결과 76年에는 532萬人에까지 이르렀다가 最近年에야 감소 경향으로 逆轉되고 있다. 이에 비해 筆者の 推計結果로는 農業就業者數는 1955年的 444萬人으로부터 70年的 522萬人, 72年的 534萬人에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78年에는 435萬人으로 떨어짐으로써 55年 수준을 밑돌고 있다. 端的으로 말해서 筆者の 推計值은 「經濟活動人口調查」series에 비해 훨씬 더 勞動力供給의 母體를 이루는 農家人口自體의 變動과 밀접히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점에 그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위의 農林業就業者變動의 推計結果를 對前年增加率 및 그 3個年移動平均值로 나타낸 것 이 <그림 7>의 (a)이며, 「經濟活動人口調查」series을 마찬가지로 보인 것이 (b)이다. 筆者の 推計에 따르면 農業就業者數는 1956~63年期間은 年平均 1.5%內外의 增加를, 1964~68年間은 1%內外의 증가를 보여 오다가 70~73年경까지 거의 不變水準에 머물었으며 74年以後 年平均 3% 정도의 감소로 逆轉되었다. 이에 反해 「經濟活動人口調查」series에서는 1964~68年경까지 거의 不變水準에 있었던 農林業就業者數가 工業化의 진행과 함께 增加를 시작하여 年平均增加率도 69, 70年경의 1.5%에서 72~74年경에는 3%에까지 높아졌다가 76年 이후에 와서야 다시 減少로 逆轉되는 時間의 類型을 보이고 있어 農業勞動力需給을 둘러싼 經濟社會의 與件變動과는多少 거리를 느끼게 한다.

筆者の 推計에 따르면 農業就業者數는 1963年 이전까지는 年平均 7~8萬人, 1964~68年期間에는 5萬人 내외의 增加를 기록했으며 69~73年期間에는 거의 不變을 유지하다가 74年 이후에는 年平均 20萬人 정도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推算된다.

IV. 남은 課題

지금까지의 分析을 통해서 우리는 戰後期 韓國經濟 특히 農業部門의 成長 및 그 類型을 互視的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隘路의 하나로 되어 왔던 一貫性있는 農業勞動力ストuktur統計의 문제에 관해 利用可能한 既存의 公式系列에 관해 比較吟味하고 既存의 推計研究



〈그림 7〉 農林業就業者增加率

成果를 검토한 후, 筆者 나름대로 制約된 資料事情 아래서 나마 一次的인 試圖로서 勞動力接近法에 따른 一貫性있는 概念定義 아래 1955~78年期間에 관한 農家經濟活動人口 및 農家就業者數의 年次別 時系列을 구성해 보았다.

그러나 이 試圖는 韓國農業 나아가서는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을 體系的으로 理解하려는 研究努力에 있어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作業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아직도 상당한 改善의 餘地를 남기고 있다.

첫째, 勞動力推計方法에 있어서의 改善問題이다. 勞動力의 構成은 男女別뿐 아니라, 年齡階層別로도 經濟活動參加率, 農業就業의 比率 등에 있어 현저한 類型의 차이를 지니게 마련이다. 今般의 推計作業에 있어서는 資料의 制約 때문에 男女別 區分推計에 그쳤으나, 利用資料의 改善과 함께 年齡 기타의 屬性에 따른 區分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추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農業勞動力에 관한 基礎統計調查의 擴充 改善의 必要性이다. 近年에 있어 農業勞動力의 不足化나 機械化의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農業勞動力의 構成 및 그 變動에 관한 調查는 여전히 매우 未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76年 이후부터 「農業基本調查」속에 「農業セン서스」의 農業從事人口概念에 따른 몇가지 調查項目이 追加되고 있을 뿐, 自家雇傭中心이며 緣邊勞動力⁽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一般產業部門과는 크게 性質을 달리 하는 農業部門의 勞動力調查를 國民經濟全般을 망라한 標本家口를 대상으로 한 「經濟活動人口調查」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農業勞動力의 實態把握을 더욱 어렵게 한다.

農業勞動力 및 雇傭實態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農家만을 對象으로 하여 別途로 設計된 調查를 실시하며 4分期뿐 아니라 季節性이 격심한 農業雇傭의 特性을 밝힐 수 있을 만큼 年間의 調查回數를 늘린 調查方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이 研究에서는 研究關心이 農業勞動力의 規模變動에 국한되었으므로 餘他部門의 勞動力統計와 관련시킨 分析은 일체 論外로 하여 왔다. 그러나 研究의 다음 단계에서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이나 勞動力人口의 總體的 變動을 문제로 할 때는 他部門의 雇傭統計와 관련지은 論議가 불가피해 진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장래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8) 梅村又次教授는 勞動力의 構造를 勞動力의 供給側으로부터 層化하여 恒常勞動力과 緣邊勞動力으로 區分하고 있다. 여기서 緣邊勞動力이라고 함은 勞動市場의 情勢나 世帶의 經濟狀態의 變動에 對應하여 勞動力과 非勞動力과의 境界에서 斷續的으로 勞動市場에 参加하거나 임시적 일시적으로 就業하는 浮動勞動力を 가리킨다. 家族經營의 小農에 이러한 類型에 속하는 勞動力이 상당히 存在할 것임은 물론이다. 梅村又次, 『勞動力の構造と雇傭問題』(一橋大學 經濟研究叢書 23), 岩波書店, 1971, 第1章 참조.

〈附表 1〉 「人口セン서스」의 經濟活動關聯調查項目

1. セン서스年度	1955	1960	1966	1970	1975
2. セン서스 및 報告書名稱	內務部統計局, 『第1回簡易總人口調査報告』(1960人口調査報告書) (2卷 11-1全國編)	經濟企劃院統計局, 『1966人口調査報告』(1966住宅國勢調査報告) (2卷 全國編)	經濟企劃院統計局, 『1970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12-1調査報告) (2卷 4-1經濟活動)	經濟企劃院統計局, 『1975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14-1調査報告) (2卷 3-1經濟活動)	經濟企劃院統計局, 『1975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14-1調査報告) (2卷 3-1經濟活動)
3. 調査基準日	9月 1日	12月 1日	10月 1日	10月 1日	10月 1日
4. 調査對象期間		11. 24~11. 30간의 1週간의 실제 간의 실제 의 경제 활동 동상태	9. 22~9. 28 간의 실제 의 9. 21~ 경제 활동상 태	14세 이 상 자 9. 21~ 9. 27간의 실제 활동 상태	9. 22~9. 28 간의 활동 상태
5. 標本의 크기		20%	10%	10%	5%
6. 調査結果表 및 収錄面					
(1)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상태	pp. 96ff.	pp. 110ff.	pp. 110ff.	pp. 20ff.	pp. 30ff.
(2) 산업, 직업 및 성별 취업자				62	82
(3) 산업, 연령 및 성별 취업자			132	90	92
(4) 연령, 성,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304	272
(5) 산업, 종사상의 지위, 성별 취업자		236	150	312	281
(6) 평상상태취업기간, 연령 및 성별 취업자				368	
(7) 산업, 취업상태 및 성별 취업자(13세 이상)		168			
(8) 직업, 성, 연령별 취업자	106	224			

〈附表 2〉 「農業센서스」의 就業別 農家人口數

(단위 : 人)

1. 1960年 性別・年齢別 自家農業勞動과 雇傭勞動

常時自家勞動⁽¹⁾ 5,166,662

男 3,017,351

14세 미만 54,341

14세 이상 2,963,010

女 2,147,110

14세 미만 34,825

14세 이상 2,112,285

內容無答 1,281

一時自家勞動⁽²⁾ 2,487,363

男 850,855

14세 미만 331,573

14세 이상 519,282

女	1,626,045
14세 미만	311,960
14세 이상	1,314,085
內容無答	975
有給雇傭	
여 습 ⁽³⁾	
농가(戶數)	219,157
人數	240,447
使用농가수	
달여습 ⁽⁴⁾	54,110
날품 ⁽⁵⁾	1,181,584

註 : (1) 1年 중 7개월 이상 자기집 농사에 일한 者.

(2) 7개월 미만 자기집 농사에 일한 者.

(3) 일정한 품삯을 받기로 약속하고 7개월 이상 농사에 종사한 者.

(4) 일정한 품삯을 받기로 약속하고 1~7개월 농사에 종사한 者.

(5) 하루 하루 품을 사서 농사일을 한 者.

2. 1970年 14歲以上 就業別 農家人口

14세 이상 농가인구	8,150,469
농업종사인구	7,497,181
그중 농업이 주인 者	4,119,416
농업이 외종사인구	521,627
차가영업종사자	792,445
그중 영업이 주인 者	195,267
피고용종사자	528,230
그중 피고용이 주인 者	326,360
기타인구	3,509,426
가사종사인구	2,509,539
비종사인구	
학생	538,940
기타	460,947

註 : (14세 이상 농가인구)=(농업종사인구 중 농업이 주인 자)+(농업이 외종사인구)+(기타인구).

(농업이의 종사인구)=(차가영업종사자 중 영업이 주인 자)+(피고용종사자 중 피고용이 주인 자).

3. 1975年 14歲以上 就業別 農家人口

14세 이상 농가인구	8,463,779
농업종사인구	7,453,720
그중 농업이 주인 者	4,428,763
겸업종사인구	649,328
그중 겸업이 주인 者	439,489
기타인구	3,595,527
가사	1,828,130
학생	1,188,264
기타	579,133

註 : (14세 이상 농가인구)=(농업종사인구 중 농업이 주인 자)+(겸업종사인구 중 겸업이 주인 자)+
+(기타인구).

〈附表 3〉 農家人口統計의 比較

	農家戸數(千戸) 〔農業基本調査〕 (1)	農家人口(千人) 〔農業基本調査〕 (2)	14歳以上 農家人口(千人)	
			〔農業基本調査〕 (3)	〔經濟活動人口調査〕 (4)
1955	2,218	13,300	8,441	
1956	2,201	13,445	8,519	
1957	2,211	13,592	8,586	
1958	2,218	13,750	8,659	
1959	2,267	14,126	8,835	
1960	2,350	14,559	9,081	
1961	2,327	14,509	8,928	
1962	2,469	15,097	9,245	
1963	2,416	15,266	9,295	8,686
1964	2,450	15,553	9,454	8,886
1965	2,507	15,812	9,831	8,985
1966	2,540	15,781	9,844	9,006
1967	2,587	16,078	9,845	8,843
1968	2,579	15,908	9,965	8,739
1969	2,546	15,589	9,746	8,601
1970	2,483	15,151	9,390	8,540
1971	2,482	14,712	9,033	8,283
1972	2,452	14,677	9,172	8,447
1973	2,450	14,261	8,921	8,744
1974	2,381	13,783	8,685	8,984
1975	2,379	13,244	8,464	9,054
1976	2,336	12,785	8,302	9,128
1977	2,304	12,309	8,114	9,023
1978	2,224	11,527	7,715	8,734

註 : (1)欄은 「農業基本調査」의 數值임。

(2)欄은 「農業基本調査」의 數值임。 다만 「農業基本調査」가 실시되지 않은 1970년에 관해서는 1969, 71年間을 直接補間한 數值임。 또 1973, 74兩年에 관해서는 標本調查方式으로의 變更에 따른 系列의 斷層을 조정하기 위해 각年을 포함하는 前後 3個年에 관한 平均值를 취한 것임。

(3)欄은 「農業基本調査」의 年齡別 農家人口에서 산출한 것임。 다만 原資料의 年齡區分基準이 期間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14歳를 포함한 年齡層內의 年齡分布는 균등한 것으로 假定함。 1973, 74兩年에 관해서는 (2)欄과 같은 方式의 調整을 가했음。

(4)欄은 「經濟活動人口調査」의 年平均值임。

〈附表 4〉 「人口센서스」의 農業就業者數

(단위 : 千人)

	總 計			男			女		
	總 數	農林漁業	農 業	總 數	農林漁業	農 業	總 數	農林漁業	農 業
1955	8,053	6,405		4,834	3,499		3,219	2,906	
1960	7,028	4,613		5,006	3,206		2,022	1,407	
1966	7,963	4,553	4,389	5,426	2,992	2,849	2,538	1,561	1,540
1970	10,153	5,157	4,858	6,578	3,021	2,789	3,575	2,136	2,069
1975	12,682	6,208	6,006	7,702	3,281	3,107	4,980	2,927	2,899

註 : (1) 1955, 60年은 직업분류상의 농부·어부·별목부·수렵부 및 유사직업종사자의 수임.

(2) 〈附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은 調查對象期間이 明示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有業者接近法의 조사결과인 것으로 추정됨.

資料 : 〈附表 1〉에 열거된 각年度 션서스 결과 보고서에서 작성된 것임.

〈附表 5〉 「經濟活動人口調查」의 農林業就業者數

(단위 : 千人)

	年 平 均			9 月		
	全 產 業	農 林 漁 業	農 林 業	全 產 業	農 林 漁 業	農 林 業
1964	7,799	4,825	4,655	8,507	5,473	5,256
1965	8,206	4,810	4,603	8,774	5,331	5,080
1966	8,423	4,876	4,695	8,846	5,286	5,097
1967	8,717	4,811	4,598	9,549	5,469	5,235
1968	9,155	4,801	4,582	9,911	5,522	5,267
1969	9,414	4,825	4,687	10,267	5,615	5,435
1970	9,745	4,916	4,826	10,670	5,828	5,682
1971	10,066	4,876	4,758	10,934	5,625	5,476
1972	10,559	5,346	5,110	11,452	6,035	5,652
1973	11,139	5,569	5,260	12,021	6,267	5,954
1974	11,586	5,584	5,304	12,168	6,220	5,938
1975	11,830	5,425	5,123	12,624	6,140	5,849
1976	12,556	5,601	5,323	13,351	6,241	5,942
1977	12,929	5,405	5,161	13,664	6,075	5,827
1978	13,490	5,181	4,920	14,082	5,726	5,532
1979	13,664	4,887	4,642	14,374	5,544	5,279

〈附表 6〉 「農家經濟調查」1 戶當 平均(人) 與 農業從事者數의 推定

家口員	營農從事者	「農家經濟調查」1 戶當 平均(人)					農家戶數 (千戸)	農家人口	推定結果(千人)			
		自家營農從事者			雇傭從事者	(4)+(6)			(2) × (8)	(7) × (8)		
		(1)	(2)	(3)					(1) × (8)			
1962	6.32	3.39	3.30	1.89	1.41	0.09	1.98	2,469	15,604	8,370	4,889	
1963	6.39	3.19	3.10	1.86	1.24	0.09	1.95	2,416	15,438	7,707	4,711	
1964	6.44	3.27	3.16	2.06	1.10	0.11	2.17	2,450	15,778	8,012	5,317	
1965	6.29	3.15	3.08	2.07	1.01	0.07	2.14	2,507	15,769	7,897	5,365	
1966	6.22	3.12	3.04	2.08	0.96	0.08	2.16	2,540	15,799	7,925	5,486	
1967	6.12	3.12	3.07	2.08	0.99	0.05	2.13	2,587	15,832	8,071	5,510	
1968	6.02	3.00	2.93	2.05	0.88	0.07	2.12	2,579	15,526	7,737	5,467	
1969	5.99	2.96	2.91	2.18	0.73	0.05	2.23	2,546	15,251	7,536	5,678	
1970	5.92	2.91	2.88	2.23	0.65	0.03	2.26	2,483	14,699	7,226	5,612	
1971	5.83	2.92	2.88	2.22	0.66	0.04	2.26	2,482	14,470	7,247	5,609	
1972	5.71	2.98	2.95	2.37	0.58	0.03	2.40	2,452	14,001	7,307	5,885	
1973	5.72	2.93	2.92	2.37	0.55	0.01	2.38	2,450	14,014	7,179	5,831	
1974	5.66	2.86	2.84	2.26	0.58	0.02	2.28	2,381	13,476	6,810	5,429	
1975	5.63	2.86	2.82	2.27	0.55	0.04	2.31	2,379	13,394	6,804	5,495	
1976	5.54	2.85	2.81	2.25	0.56	0.04	2.29	2,336	12,941	6,658	5,349	
1977	5.52	2.74	2.71	2.07	0.64	0.03	2.10	2,304	12,718	6,313	4,838	
1978	5.38	2.64	2.64	2.02	0.62	0.02	2.04	2,224	11,965	5,916	4,537	

註 : 雇傭從事者는 내용上으로는 모두 年雇이므로 常時從事者에 속하는 것으로 看做함.

〈附表 7〉 農家人口의 經濟活動關聯指標

(單位 : %)

	14歲以上人口比率			經濟活動參加率			就業率			農家就業者數에 대한 農業就業者의 比率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1955	63.5	62.1	64.8	(58.1)	(78.0)	(40.0)	(96.7)	(96.0)	(98.0)	(93.6)	(91.0)	(98.0)
1956	63.4	62.0	64.6	(58.1)	(78.0)	(40.0)	(96.7)	(96.0)	(98.0)	(93.5)	(91.0)	(98.0)
1957	63.2	61.9	64.4	(58.2)	(78.0)	(40.0)	(96.7)	(96.0)	(98.0)	(93.5)	(91.0)	(98.0)
1958	63.0	61.6	64.3	(58.3)	(78.0)	(40.0)	(96.7)	(96.0)	(98.0)	(93.5)	(91.0)	(98.0)
1959	62.6	61.1	64.0	(58.3)	(78.0)	(40.0)	(96.7)	(96.0)	(98.0)	(93.5)	(91.0)	(98.0)
1960	62.4	61.3	63.4	(58.3)	(78.0)	(40.0)	(96.7)	(96.0)	(98.0)	(93.5)	(91.0)	(98.0)
1961	61.5	60.5	62.5	(58.5)	(78.0)	(40.0)	(96.7)	(96.0)	(98.0)	(93.5)	(91.0)	(98.0)
1962	61.2	60.3	62.2	(58.7)	(78.0)	(40.0)	(96.7)	(96.0)	(98.0)	(93.5)	(91.0)	(98.0)
1963	60.9	60.0	61.8	59.0	77.6	40.9	97.1	96.7	97.9	93.9	91.5	98.2
1964	60.8	59.9	61.6	58.5	76.9	40.6	96.5	95.8	97.8	93.2	90.5	98.1
1965	62.2	61.3	63.0	58.8	76.8	41.0	96.9	96.2	98.2	90.7	88.2	95.2
1966	62.4	61.4	63.4	59.0	76.4	42.1	96.9	96.1	98.3	91.7	89.2	96.1
1967	61.2	60.1	62.4	59.1	75.7	43.1	97.6	97.3	98.2	90.5	88.2	94.1

1968	62.6	61.5	63.8	60.6	75.5	46.0	98.1	97.9	98.4	88.8	87.0	91.6
1969	62.5	61.4	63.7	61.5	76.8	46.5	97.8	97.4	98.5	90.6	(90.0)	91.6
1970	(62.0)	(60.8)	(63.2)	61.5	75.2	48.2	98.4	98.2	98.7	91.9	(90.0)	94.7
1971	61.4	60.2	62.6	61.7	75.0	48.9	98.5	98.3	98.8	(92.0)	(90.0)	(95.0)
1972	62.5	61.5	63.5	64.1	74.5	53.8	98.7	98.4	99.0	(92.1)	(90.0)	(95.0)
1973	62.6	61.6	63.5	64.9	75.0	55.0	99.0	99.0	99.0	(91.8)	(90.0)	94.3
1974	63.0	62.0	64.0	64.3	75.3	53.4	98.8	98.8	98.8	(91.9)	(90.0)	94.4
1975	63.9	62.8	65.1	62.7	73.8	51.8	98.8	98.5	99.2	(91.3)	(90.0)	93.1
1976	64.9	63.9	66.0	64.8	74.5	55.3	99.1	98.8	99.4	90.9	89.8	92.3
1977	65.9	64.8	67.0	63.3	74.3	52.5	98.9	98.7	99.2	(90.8)	(90.0)	91.8
1978	66.9	65.8	68.1	64.1	74.5	54.0	99.1	99.0	99.3	88.8	86.6	91.8

註 : () 속은 推定値임.

資料 : 14 歲以上 人口比率은 「農業基本調查」, 기타는 「經濟活動人口調查」임.

〈附表 8〉 農家經濟活動人口 및 農業就業者推計結果의 比較 (단위 : 千人)

	農家經濟活動人口					農林業就業者		
	本推計 (1)	「經濟活動 人口調查」 (2)	潘性統 推計 (3)	(2)/(1) (4)	(3)/(1) (5)	本推計 (6)	「經濟活動 人口調查」 (7)	(7)/(6) (8)
1955	4,903		4,788		0.98	4,437		
1956	4,953		4,831		0.98	4,482		
1957	5,001		4,862		0.97	4,524		
1958	5,050		4,914		0.97	4,567		
1959	5,151		4,999		0.97	4,659		
1960	5,298		5,107		0.96	4,792		
1961	5,219		5,025		0.96	4,719		
1962	5,425		5,249		0.97	4,902		
1963	5,484	5,089	5,281	0.93	0.96	5,000	4,644	0.93
1964	5,534	5,168	5,441	0.93	0.98	4,978	4,655	0.94
1965	5,779	5,233	5,437	0.91	0.97	5,079	4,603	0.91
1966	5,810	5,279	5,426	0.91	0.94	5,162	4,695	0.91
1967	5,823	5,195	5,315	0.89	0.91	5,148	4,598	0.89
1968	6,035	5,256	5,329	0.87	0.88	5,255	4,582	0.87
1969	5,990	5,259	5,228	0.88	0.87	5,309	4,687	0.88
1970	5,775	5,198	5,109	0.90	0.88	5,221	4,826	0.92
1971	5,576	5,094	4,918	0.91	0.88	5,054	4,758	0.94
1972	5,877	5,408		0.92		5,341	5,110	0.96
1973	5,793	5,682		0.98		5,267	5,260	1.00
1974	5,581	5,773		1.03		5,065	5,304	1.05
1975	5,303	5,673		1.07		4,783	5,123	1.07
1976	5,381	5,914		1.10		4,844	5,323	1.10
1977	5,133	5,709		1.11		4,608	5,161	1.12
1978	4,943	5,585		1.13		4,353	4,920	1.13

資料 : (1), (6)은 〈表 1〉 (2), (7)은 「經濟活動人口調查」

(3)은 潘性統, 『韓國農業の成長』, 1974, p. 166.